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8호
2004. 8. 16

러시아 연해주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자

○ 침체된 한·러 관계의 복원,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반조성,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위해서 러시아 극동 및 연해주지역에 대한 진출전략을 새롭게 검토하여 한·러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대두

○ 연해주는 에너지자원 수출기지, 한반도와 유럽대륙의 연결고리, 소규모이나 성장 시장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면서 남북협력 및 동북아협력의 촉매제 역할

○ 연해주에서의 한·러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정도, 극동 및 연해주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경합관계, 협력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모색할 필요

-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교통·통신 인프라부문이 가장 유망하며 농업, 산업단지, 주택 등 건설부문, 산림·수산자원 가공부문에서도 선별적 협력이 가능

○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며, 민간부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긴요

- 러시아정부는 투자환경의 조성 및 개방정책을 확고히 실행할 필요가 있고
- 한국정부도 지역인프라 구축과 나호트카 공단건설 등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國土硏究院

1. 연해주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의 전략적 의미

○ 한·러 경제협력에서의 의미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 창출
-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활용
-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 및 아태지역 교두보 확보

○ 동북아 및 남북협력에서의 의미

- 에너지와 교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역공공재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
-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러시아의 토지 및 자원이 결합되는 삼각협력의 장소를 제공
  - 북한의 식량난과 전력난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우회지원기지 및 연해주 지사가 밝힌 바 있듯이 유사시 탈북인의 수용기지 역할도 가능
- TSR - TKR 연결 및 연해주내 물류기지 건설로 한국의 물류거점전략에서 필수적인 배후지 및 국제철도수송체계의 거점 확보

2. 연해주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제약요인

○ 전략적 가치

- 에너지·자원 수출기지, 유라시아 대륙교와 한반도 및 아태지역과의 연결고리, 소규모 시장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가치를 보유

○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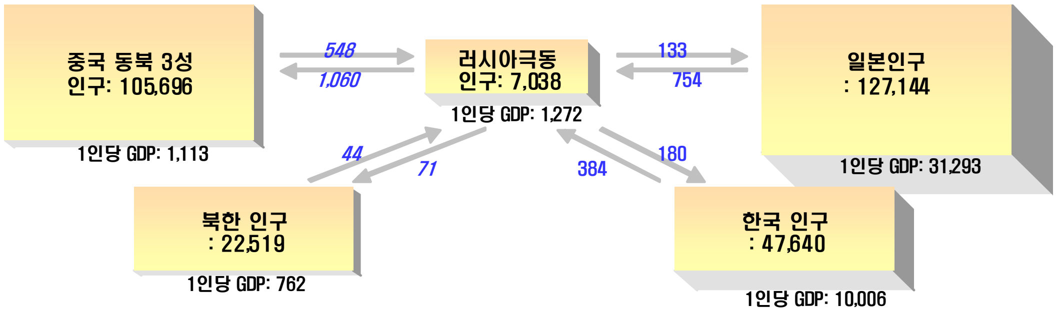
-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재원부족, 제도적 환경 미비 및 만성적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연해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개발전략이나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의 시각차이도 연해주지역의 발전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

3. 주변국과 극동(연해주)지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 경제력 및 경제적 상호보완성에서 볼 때 일본과 극동지역이 가장 활발한 교류를 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열세

<그림 1> 러시아 극동과 주변국의 인구, 1인당 GDP 및 교역관계 (2000년 기준)

(단위 : 천명, 백만 달러, 달러)



주 : 이탤릭체 숫자는 각 지역과 러시아 전체와의 교역액임. 중국 동북3성의 경우 길림성은 자료 불비로 미포함, 중국 동북3성의 러시아 교역액의 상당부분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임

○ 중국은 극동지역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공급 및 소비재 공급 기지, 시베리아 에너지 수요처로서 극동지역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 한편 극동지역정부는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 일본, 미국,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다변화 전략을 구사

○ 한국은 정치·안보상의 이유로 소극적인 일본보다 극동지역 개발사업 참여 여지는 많으나, 90년대 초기 진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 향후 에너지 자원확보 등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한·러 양국간 협력을 통하여 연해주에서의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국의 역할증대를 도모할 필요

- 러시아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TSR-TKR 연결은 장기적으로 연해주 및 극동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를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전력, 식량, 기술제공에서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를 매개로 북한에 실질적인 지원 가능

4. 전략적 이해관계와 연해주에서의 한·러 협력방안

○ 전략적 이해관계와 장기협력사업

-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사업과 TSR-TKR 연결사업은 한·러 경제협력의 심화와 동북아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최상위 전략적 협력 분야
- 국지적인 자원개발이나 인프라개발사업의 유용성은 개별사업의 타당성 이외에 상기한 두 가지 전략적 협력분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 국지적인 중단기 협력사업

- 한·러간 전략적 이해관계, 주변국과의 경합성, 한국의 대북 및 대동북아 협력 전략과의 일관성,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물류·수송, 에너지인프라, 농업, 그리고 산업단지 및 주택 등 건설부문의 순으로 협력 우선순위를 설정 가능
- 물류·수송분야에서는 개별적인 사업보다 연해주와 극동지역 및 동북 3성의 개발전망을 반영한 세 가지 수송 노선에서 파생되는 수요를 담아내는 도로, 철도, 항만, 물류유통기지와 관련된 복합적 사업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

※ 동북아 국제교역의 현황과 향후 중국 동북 3성의 성장, 북한의 개방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감안할 때 하얼빈-그로데코-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연해 1노선, 훈춘-크라스키노-포시에트를 연결하는 연해 2노선과 나진-핫산을 잇는 연해 3노선으로 구분가능

<그림 2> 연해주 경유 3개 수송 노선

- 에너지 수송 및 관련 인프라 부문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체계에서의 결절지라는 이점을 살리는 원유기지, PNG 터미널, 석유정제시설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
- 농업부문은 북한과 연해주내 현지 수요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비료나 농기계 등 관련산업의 복합적 진출로 수익성을 달성 가능

<표 1> 연해주 주요 사업 분야와 전략적 이해관계

기준 / 사업 분야	한·러 간 전략적 이해관계	남북 및 동북아협력에의 의의	지역의 수용태도	타국과의 경합관계	비고
에너지개발·수송	일치	중요	선호하나 효과에 대해서는 미온적	중·일과 경합관계 한·러 협력 강화필요	대규모 투자 소요, 이해관계 조정 난관
교통·통신	일치	중요	선호	중국은 자국의 수출회랑 구축에 관심	중규모 투자 소요, 북한의 참여의지
광물자원개발	부분적 일치	제한적	제한적 선호	수입국과의 상충관계	개발의 효과성 문제
농업개발	부분적 일치	북한노동력 활용시 유리	선호	중국과의 경합	가격경쟁력의 문제
산림·수산 자원가공	일치	상충가능성	매우 선호	중·일 모두 관심, 경쟁관계 심화가능	수익성의 문제
산업단지	일치	상충가능성	선호	중·일 모두 나호트카 공단 성사 여부에 관심	연방정부의 태도가 관건
주택 등 사회 인프라개발	부분적 일치	북한노동력 활용시 유리	선호	일본의 진출 여부 유념	시장진입여부가 관건
과학기술자원	일치	중립적	매우 선호	중·일과 경쟁관계, 미국과의 마찰소지	러시아의 협력 정도가 문제

- 산업단지, 주택 등 건설부문은 연해주지역의 수요증대를 감안하면 수익성이 높지만 시장진입 및 운영상의 장애요인으로 위험도가 높아 신중한 접근을 필요

· 나호트카 한·러공단은 양국 정부간 협정에 의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러시아 정부 및 의회의 나호트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방정책이 시행될 경우 양국간의 신뢰구축과 한국의 연해주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수행 필요

· 1단계 6만평 조성공사는 조속히 착수하고 2단계는 물류와 에너지 관련산업을 수용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5. 협력사업의 추진방식과 지원 과제

○ 한·러 협력은 러시아의 과도기적 특수성,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수한 민간부문 협력보다는 정부의 지원하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

○ 연해주에서의 협력사업은 개별사업 위주가 아닌 패키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욕구 충족과 장기적 이익 확보에 유리

- 나호트카 항만현대화, 인입철도 및 도로의 정비 등과 결합된 나호트카 공단 건설
- 우수리스크 농업개발의 경우, 농업단지와 농기계, 비료공장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 및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 연해주내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예, 핫산- 우수리스크)에서의 도로 확충 및 정비 등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지역공공재 확충에 필요한 선행적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러시아경제의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하여 연해주 및 극동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금융지원과 현지 파견인력의 안전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발전에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투명한 제도 구축에 노력할 필요

- 나호트카 경제특구를 조기 지정하고 보세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wbkim@krihs.re.kr, 031-380-022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이규방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홈페이지 www.krihs.re.kr

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國土硏究院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